

목돈 마련 '청년내일저축계좌'

무주군, 8월 5일까지 취·창업 청년 대상 신규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무주군은 취·창업 청년을 대상으로 신규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18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100% 이하 취·창업 청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저축에 정부지원금을 차등 매칭 지원해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 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은 차상

위 이하인 경우 만 15~30세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청년이고, 차상위 초과인 경우 만 19~34세의 근로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00만 원 이하인 청년으로, 모두 가구재산이 1.7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차상위 이하인 경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하며, 차상위 초과인 경우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 원을 지원하며 3년 만기다.

대상자 선정은 군청 통합조사팀에서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검토해 10월초 통보할 예정

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복지과 감미경 과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에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무주지역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3-320-2313)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자연휴양림 본격 운영

와룡·방화동자연휴양림·방화동가족휴가촌 성수기 대비 만전

장수군이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오는 8월 24일까지 자연휴양림 여름철 성수기 운영을 시작한다.

장수군은 와룡·방화동자연휴양림 및 방화동가족휴가촌을 운영하고 있으며, 70여 실의 숙박시설과 야영장,



장수군 와룡자연휴양림

물놀이장, 등 각종 편의시설과 산림욕장, 황토포장길, 장수치유의 숲 등 휴양공간이 잘 마련돼 있다.

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휴양시설 이용객 증가에 따라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성수기 관리인력을 증원하고, 방역 작업, 안전 및 응급처치교육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등 성수기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이번 여름에는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와룡자연휴양림 수영장 및 물놀이장 운영을 22일부터 재개해 다시 운영을 시작한다.

와룡휴양림 수영장 및 물놀이장은 휴양림 시설이용객 및 장수군민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방화동자연휴양림 방화폭포도 성수기를 맞아 시간제로 운영해 휴양지 이용객에게 불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성재 산림과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많은 이용객들이 장수군 산림휴양시설에서 즐겁고 행복한 여름의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코로나 재유행 대비 생활방역수칙 준수 당부

진안군은 코로나 재유행 방지를 위해 손씻기, 환기·소독 등 생활방역수칙을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확진자 증가에 따른 재감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군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개인방역수칙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하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하기,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기, △흐르는 물에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하루에 10분 이상 3번은 꼭 환기하기,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하기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에어컨 가동이 증가하여 비말감염의 위험이 높아지며, 일상생활의 90%를 머무는 실내의 환기가 부족하면 외부

환경보다 최대 10배 오염될 수 있어 무엇보다 환기가 중요하다.

기본 환기법은 △1일 최소 3회(10분) 이상 창문 열어 환기하기, △맛집풍이 일어나도록 문과 창문 동시에 여러개 열기, △냉방중에도 주기적으로 환기하기이다.

문병인 안전재난과장은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군민 개개인이 일상 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수칙을 지켜 주실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악성민원 대처능력 강화해야"

오광석 무주군의회 부의장, 직원 보호 위해 적극 대응 강조

오광석 무주군의회 부의장이 대면업무 하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석 부의장은 지난 19일 열린 제 29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받고 악성민원이 근절되지 않아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생긴다며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오광석 부의장은 "민원창구를 방문하는 주민이 하루 평균 100명, 연간 3만 명 규모이고 전화민원을 포함하면 그 수가 굉장히 많다. 그중 트집을 잡거나 억지주장을 펼치고, 심지어 욕설이나 성희롱을 하는 민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오광석 부의장은 "이런 악성민원은 발생빈도가 적어도 직원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업무만족도와 사기를 꺾는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행정서비스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악성민원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원인이 본인의 불편을 가감



없이 분출하기 앞서 응대하는 직원도 누군가의 자녀이고 주민이라는 점을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무주군은 주로 건축 관련 민원에서 악성민원 사례가 꽤 있다며 이 같은 지적에 동의하고 직원 정신건강을 지키고자 힐링캠프, 심리상담, 비상상황 대비 경찰 합동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오광석 부의장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민원만족도 조사에서 무주군이 2020년 '가' 등급을 받았지만 2021년 '나' 등급을 받았으며 더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주군이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양질 무주군 보건복지서비스 '최선'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식·정기회의

무주군은 지난 19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식과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제9기 대표협의체 위원 30명에 대한 위촉식과 새로 출범하는 제9기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홍진홍)과 부위원장(김인환)을 선출했다.

회의는 2022년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반기 사업보고 및 제5기 무주군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년) 수립, 추진현황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한다.

상반기에는 실무부에서 기획 사업으로 우리 가족끼리 돌레길 산책과 100세 이상 어르신 16명을 대상으로 '무병장수를 기원합니다'를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는 저소득 노후주택 개선,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다이어트 프로젝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인홍 공동위원장은 "무주군의 함께 하는 복지 추진에 진정된 민·관협치를 이루기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새로 선출된 홍진홍 위원장은 "협의체 위원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양질의 무주군 사회보장서비스를 계획하겠다"며 "안전한 무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 강화

진안군은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성분을 기존 320종에서 463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일부 개정으로 생산·유통단계의 잔류농약 분석법이 통일화됨에 따라 국내 농약 생산·출하량이 많은 성분, 토양·용수 등 농업환경 유래 잔류농약 성분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가 설정하여 농산물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됐다.

검사 대상은 총 463종으로 살균제 125종, 살충제 198종, 제초제 127종, 생장조절제 11종, 살비제 1종, 살서제 1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농산물 441점을 분석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

이와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농가를 대상으로 분석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 개정 등을 통해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분석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깨끗한 봉투에 분석할 농산물 1~2kg을 담아 농업기술센터 내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로 방문하여 의뢰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청년 소통 간담회

장수군은 지난 19일 장수군자원봉사센터 세미나실에서 관내 청년단체, 청년창업인, 청년직장인들과 함께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청년 의견 교류의 장으로 청년들이 장수군에 거주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과 장수군에 바라는 청년정책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장수군 청년 정책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청년단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 청년정책의 실제 수혜자인 청년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방안,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